

계의 덕은 3악도를 멀리 한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4)

나찰이 된 병사왕

옛날 병사왕에게 한 대신이 있었는데, 잘못이 있어 왕은 그 대신을 남쪽으로 귀양을 보냈다. 천 리나 떨어진 그곳은 본래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서 곡식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 대신이 이르자 샘물이 흘렀고 곡식이 저절로 익었다.

사방의 여러 나라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대신은 오는 이들에게 논밭을 나누어 주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아직 왕이 없었다.

어느 날, 장로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한 장로가 말했다.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은 몸에 머리가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장로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장로들은 대신을 왕으로 모시자고 의견을 모았다. 장로들이 대신에게로 가서 대신을 왕으로 모시려 하자 대신이 장로들에게 말했다.

“만약 나를 왕으로 삼는다면 다른 여러 나라의 왕법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좌우에 문무 대신과 장사가 응위하고 상하가 조공하며 여인들을 징발하고 궁전을 짓고 세금과 곡식과 비단을 거두는 등, 백성 또한 옛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장로들이 말했다.

“왕의 명을 받을 것이며 한결 같이 왕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하여 대신은 왕이 되었고, 여러 문무 대신과 신하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성을 쌓고 집과 궁전을 지었다.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졌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가 역모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간신배들이 왕을 모시고 사냥을 나갔다가 성에서 30, 40리쯤 떨어진 넓은 들만 가운데서 왕을 죽이려 하자,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신하들이 말했다.

“백성들은 풍년과 즐거움이 그리워서 왕을 예로써 받들었으나, 백성들이 고생되므로 반란을 생각하여 집을 부수고 나라를 도모하려 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대들은 스스로가 한 것이었고, 내가 본래 하고 한 것이 아니었소. 그릇되게 나를 죽인다면 신기(神祇)가 알 것이요, 나에게 서원을 하나 세울 것을 허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소.”

그리고는 즉시 서원을 했다.

“저는 본래 황무지를 개간하여 땅을 만들어 백성들을 길렀으며, 오는 이들은 모두 지극히 부유하게 되어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저를 왕으로 삼았으니, 모든 나라의 법에 따라 자기들이 함께 이를 하여 놓고서 이제는 도리어 저를 죽이려 합니

다. 저는 실로 이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나찰이 되어 원수를 갚게 하소서.”

왕이 서원을 마치자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떠났다.

3일 뒤에 왕의 혼이 몸 안으로 돌아와 스스로 아라파라고 이름 짓고 이내 일어나 궁중으로 들어가서 새 왕과 후궁과 채녀들과 간신들을 죽이고 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그러자 나라 안의 세 장로들이 새끼줄로 자신들을 포박하고 와서 나찰을 향하여 말했다.

“이는 바로 간신들의 소행이었으며, 이 평민들은 모르는 일이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다스려주시시오.”

나찰이 대답했다.

“나는 나찰이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먹고

망했다. 부처님께서 도안으로 그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어린이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제도되겠구나.”

그 아이는 바로 부처님의 5계를 지닌 그 아이였다. 부처님은 이내 혼자서 날아와 나찰의 문에 닿으신 후 광명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궁전 안을 비추셨다. 나찰은 광명을 보고, 이는 이인(異人)이라 의심하면서 곧 나왔다. 부처님이 보이므로 나쁜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을 잡아먹으려 했다. 그러자 광명이 그의 눈을 찌르므로 산을 어깨에 메고 불을 내뿜어 모두 티끌로 변하게 했다. 지쳐버린 나찰이 항복을 하고 부처님을 청하여 들어와 앉게 하고 머리를 조아려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불법하시자, 일심으로 법을 듣고는 이내 5계를 받고 우바새가 되었다.

이때 마을에서는 벼슬아치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그 아이를 빼앗아 데리고 갔으므로 그 집안사람들은 통곡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는데,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위하여 슬퍼했다. 벼슬아치가 아이를 안아다 먹을 수 있도록 나찰의 앞에 가져다 놓자, 나찰은 손으로 아이를 들고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5계를 받았으므로 다시는 사람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아를 부처님께 보시하니 부처님을 사봉하게 하여주시시오.”

부처님께서 아이를 받으시고 설법과 축원을 하시자, 나찰은 기뻐하면서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어린이아를 발우 안에 넣어 들고 나찰의 문을 나와서 그의 부모에게 돌려주면서 말씀하셨다.

“어린이아를 잘 키워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신이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는 어떤 신이며, 저 아이는 무슨 복이 있기에 혼자만 구제 받아 나찰의 먹이가 되지 않고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부처님이 이내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계의 덕은 믿고 의지할 만하여서 / 복의 과보가 언제나 몸을 따르며 / 법을 보아야 사람들의 어른이 되고 / 마침내 3악도를 멀리 한다. // 계율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없애고 / 복의 과보로 삼계의 어른이 되며 / 귀신과 용은 샅년 해독으로도 / 계율 지닌 사람은 범하지 못하리.”

부처님의 빛나는 형상을 보고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계승을 듣고 기뻐하면서 모두가 도의 자취를 얻었다. (《법구비유경》제5권에 나온 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상화 · 강병호

마시는 것은 사람 고기라야 하며, 나는 성질이 조금해서 분을 내면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소.”

장로들이 말했다.

“나라는 바로 왕의 것이므로 예전대로 하십시오. 잡수실 것은 서로 차례대로 보내겠습니다.”

그러하여 나라의 장로들은 함께 나와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다.

“이제부터 차례가 되면 집집마다 어린이아와 한 사람씩을 차출하여 왕이 먹게 할 것이다.”

백성들은 몸을 희생하여 나찰 왕을 먹여주었다. 이때에 어느 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될 아이가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5계를 지니고 있었다. 현자들 모두가 괴로워하고 슬피 울면서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들을 책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44



존경과 고마움

스님의 광목 법복

부부등반 모임에서 가을 나들이로 경산 반룡사에 다녀오기로 했다. 반룡사에 도착 했을 때였다. 한 여인이 취재팀과 함께 원효대사에 관한 다류를 촬영하고 있었다. 이 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으로 우리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불교를 홍보하거나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 늘 아쉬워했는데, 이런 서원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놀랍기도 하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불교가 없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역사를 말할 수 있으며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골짜기 다 절이 있고 그곳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있다. 좀 더 가까이 피부로 느끼며 아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임을 인식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상에 많은 가르침을 남긴 선지식들의 업적들도 종교를 떠난 우리의 자부심이며 유산임을 알리고 싶다. 이곳 경산은 원효 스님의 삶이 묻어있는 스님의 고향이다. 그녀는 설총이 자랐다는 반룡사의 전설을 바탕으로 홍보 다류를 제작하여 미국사회에 한국을 알리려고 한다고 했다. 불자로서 너무나 반가웠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한국의 문화와 불교를 세계 민방에 알리어 큰 스승이 계셨던 나라, 또 큰 스승님이 계시는 나라로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광목천 범복만 평생 입은 스님 자연의 고마움 늘 생각해야

우리 일행은 다음 행선지인 은혜사로 향했다. 법당 참배와 각단 예배를 마친 후 주지, 돈관 스님을 찾았더니 출타중이라 만날 수가 없었다. 자주 범지는 못해도 나는 스님의 지극한 효심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다. 일타 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스님은 그 큰 키에 언제나 광목천으로 승복을 고집하셨는데, 그것은 은사 스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라고 했다. 사미계를 받게 되었을 때 큰 스님께서 손수 광목천을 떠와서 먹물을 들이고 또 직접 재단하여 보름동안을 연비한 손가락 하나로 밤낮으로 기워서 옷을 만들어 입혀 보셨다고 한다. 옷은 아무래도 행자였던 스님의 맘에 들지 않았고 할 수 없이 그 옷을 입고 갔을 때 같이 수계를 받는 도반들은 모두가 기림이 흐르는 기지 천으로 너무나 잘 차려 입고 와서 자랑하니 부끄러움까지 했다고 했다. 그렇게 별로 인 기본으로 지족만 가는 길에서 어느 스님이 “그 옷보다 이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말을 듣고 법다 기분이 좋아져 바꿔 입고 큰 스님께 자랑했다가 그 인자하시던 큰 스님이 크게 노하여 하마터면 그날 로 쫓겨나 중노릇도 못 할 뻔 했다고 솔직한 일이 떠올랐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아직 절집 생활이 몸에 배지도 않고 걸땀만 들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던 말인가. 스님은 그때야 그 뜻을 알고 그날 부터 바로 입을 꼭 다물고 “내 평생 기지 옷을 입지 않을 것이며 스승님이 해 주셨던 광목천으로만 옷으로 입을 것이다.”라고 맹세했다는 이 말을 듣고부터 그 추운 겨울날에도 풀이 뻗뻗한 광목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스님이기에 나는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산 불꽃 축제에서

부산에는 ‘부산국제영화제’, ‘팔관회’, ‘자갈치 축제’ 등 알려진 축제들이 여럿 있다. 이맘때면 불꽃축제가 열리는데 화려한 불꽃이 있어 좋다. 이번엔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불꽃으로 축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광고를 보고 도반들과 축제가 열리는 광안리를 찾았다.

일찍 가자면 좋은 자리를 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밥과 과일 등 음식을 잔뜩 준비하여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깔고 앉아 수다를 떨며 밤이 되길 기다렸다. 오늘따라 따뜻한 날씨에 파도도 얄전하게 밀려왔다. 해가 질 무렵 바다는 은빛으로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폭신한 모래위에 누워 하늘을 봤다. 너무도 맑고 깨끗한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떠가고 있었다. 즐겨 흥얼거리는 시 한 구절 읊었다. “마음은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이여라. 마음은 바다이고 생각은 파도여라.” 사람의 본심 마음을 저 하늘처럼 맑고 깨끗 할진데 구름이 하늘을 가릴 뿐이고 마음은 언제나 여여한 바다와 같은데 파도와 같은 생각이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오늘이 장소에 딱 어울리는 시다.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해변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여러 해 동안 해오던 행사로 알려져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많이 왔다. 여기저기서 밀려들어오는 사람들로 불려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안전 요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우리 “일찍 잘 왔지?” 하면서 마주보고 행복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밤 8시가 되어서야 불꽃놀이가 시작 되었다. 평평 불꽃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환호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너무도 아름답고 환호한 저 불꽃들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하만 했다. 그러나 이곳 물고기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도 되었다. 나의 말들은 도반들은 “이곳의 물고기들은 해마다 이맘때에 하는 행사인줄 다 알고 있을 거야”고 했지만 나는 웬지 먼 곳으로 도망쳐 버렸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해변 위에 가득 한 인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모두 자연의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늘 자연의 고마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았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